

#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사료곡물 시장에 미칠 영향



**한 석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3년 11월 21일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와의 경제 협력(자유무역협정, FTA) 중단을 선언하고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면서 2014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탄핵되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군사 점령 하면서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의 근본은 오래 전부터 계속된 동부와 서부의 지역갈등이

다. 동부는 러시아계 비중이 높고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크림자치공화국은 러시아계가 6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서부에는 주로 우크라이나 민족이 거주하며 친 유럽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중공업이 발달하였으나 서부지역은 평야지대로 농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 간의 소득차이가 큰 상황이다.

2014년 3월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 합병 조약에 전격 서명하면서, 서방국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제재했지만 일부에선 세계 경제 타격을 우

###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전개 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13.11.21	• 야누코비치 정부, 유럽연합과의 협정 잠정 중단으로 시민들 반발 시위
2014. 2.20.	•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제재 선언, 100여 명 사망 추정
2014. 2.25.	• 러시아 하원 대표단, 크림 반도 방문, 러시아 병합 요청시 검토 시사
2014. 3. 1.	• 러시아, 크림 반도에 무장 병력 2천 명 투입, 오바마 미 대통령 경고
2014. 3.16.	• 크림 자치 공화국/세바스토폴 특별시, 러시아 귀속안 놓고 주민투표
2014. 3.17~18.	• 주민투표에서 97% 주민들 러시아 귀속 찬성, 푸틴의 크림 합병 선언

려해 제재안이 소극적이라는 평가이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측근과 우크라이나 전 정부 관계자 등에게 자산 동결 및 여행을 금지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와 비자 발급 완화 협상 중단 및 국제 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동결하는데 그쳤다.

## ■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위치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과 밀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13/14년 양곡년도기준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이자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으로 옥수수과 밀 세계 교역량의 16.9%, 5.8%를 차지한다.

2013/14년 우크라이나 옥수수 생산량은 2,7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2.8%에 이르는 수준이다. 수출량은 1,900만 톤으로 세계 옥수수 교역량의 16.9%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은 가뭄으로 단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2012/13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약 2,000만 톤으로 세계 밀 생산량의 약 3.0% 수준이다. 또한 밀 수출량은 900만 톤으로 세계 밀 수출량의 5.8%를 차지하며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러시아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가로 생산량 5,210만 톤 중 1,660만 톤을 수출하며 세계 수출량의 1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옥수

수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생산량 1,160만 톤 중 370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교역량의 3.3%를 차지한다.

## ■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은 에너지 수입량 중 상당 부분(천연가스 25%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기 때문에 천연가스 중단 시 유럽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곡물 최대 수출국(밀·옥수수)인데다 수출물량의 약 13%가 크림반도 항구를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 18개 항구 중 14개 상업항구가 곡물 수출과 운송에 이용되고 대부분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된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보조 맞출 경우 대외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남북한 중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 동해 가스관 연결 및 나진-하산연결 사업 등 차질이 우려되며, ‘신냉정’ 구도에 휘말려 한·러 관계 악영향, 북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사료곡물 수입 차질이다. 우크라이나는 2012년 미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이후 새로운 국내 사료용 옥수수 조달처로 대두되었다. 2013년 브라질(3,255천 톤), 아르헨티나(2,475천 톤), 우크라이나(716천 톤)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동향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림공화국 합병 조약 전격 서명(14. 3.18)

**미국, EU, 캐나다 등**  
(국제법 위반) →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 경제적 제재 단행

**군사적 긴장 지속 시 곡물 가격 급등 우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옥수수 : 세계3위  
밀 : 세계6위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 중단 시 에너지 가격 상승**  
유럽 에너지 수입 상당부분  
러시아에 의존  
천연가스 25% 수입

**한국, 국제사회 제재 참여 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질**  
신 냉전구도 휘말려  
한·러 관계 악영향 초래  
북핵문제 해결 걸림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3번째 사료용 옥수수 수입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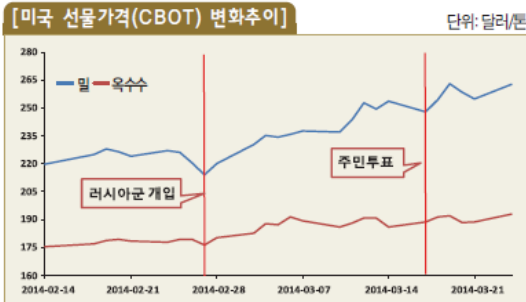
■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밀, 옥수수 수급전망 양호**

2014/15년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은 기상 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2,144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3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강추위 및 폭설에 따른 기상악화로 파종이 지연되었으나 파종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옥수수도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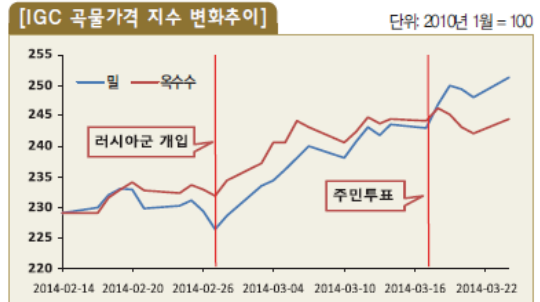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

밀,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3/14년 북반구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 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28일 러시아군 개입과 3월 16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결정 이후 밀과 옥수수의 미국 선물시장 가격은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각 19.3%, 7.1% 상승했으며, 국제곡물이사회(IGC)의 밀과 옥수수가격 지수(FOB기준)도 동기간 각각 9.9%, 4.3% 상승했다.

여기에 2014년 들어 식료품 산지를 강타한 가뭄과 가축 전염병,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의 수요증가,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가세도 2월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세하였다. 커피 원두는 브라질 가뭄으로 70% 이상 급등하였고, 미국 양돈농가의 돼지유행성 설사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가격이 40%이상 상승하였다. 이례적으로 추웠던 미국의 겨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국제 곡물 이사회(ICG)



올 탓에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밀 가격은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정정불안이 지속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일본에 이어 호주에서도 올해 엘니뇨 발생 경고가 잇따르면서 상품 투자자와 농가, 각국의 농업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엘니뇨 발생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수개월간 식료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16일 주민투표 결과, 러시아와 크림반도가 합병됨에 따라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여 추가적인 국제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5월 25일 예정된 대선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곡물 수출의 주요 항구도시인 오데사와 니콜라예프까지 시위가 확산될 경우 밀, 옥수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곡물 가격이 현재보다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곡물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제곡

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2010년 러시아 곡물 수출제한에 대한 경험이 있다.

2010년 여름 러시아는 최악의 가뭄피해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국내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밀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밀 선물가격은 1년 동안 50%이상 상승했으며, 옥수수 가격 또한 수급불안정과 소비 대체로 동기간 100%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엘니뇨 발생이 없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경우 곡물 가격은 점차적인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곡물 생산지역인 서부지역은 시위가 확산되지 않아 계약된 물량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3/14년과 2014/15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곡물 생산량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가 해결될 경우 국제 밀, 옥수수 가격의 폭등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